



# 봄을 닮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올봄에는 봄을 보듯 나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우내 내가 보고 싶었다고  
정말 내가 보고 싶어서  
많이도 가슴 두근거렸다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밀으로 파랗게 물든 새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풀썩하며 봄바람을 흔들고 지나가는 멧새였으면 좋겠습니다.  
노오란 봄빛 위로 날아가는 나비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당신에게 너무 반가운 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눈물부터 흘러게 만드는  
노오란 봄빛을 닮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